**[기자회견문]**

**기후위기 가속하는 석탄발전, 투자가 아닌 청산이 필요하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규탄한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운영업체인 삼척블루파워가 지난 2021년부터 총 4번의 채권 발행에서 거듭 기관투자자의 외면을 받았음에도 2,25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이 또 한 번 진행됐다. 우리는 ESG, 기후금융을 내세우며, 탈석탄을 선언하고서도 석탄 금융을 지속하는 금융기관들을 규탄하고, 보다 전면적인 투자중단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삼척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과 인근 해안 침식 등의 환경 훼손에 따라 지역 주민의 반대는 물론, 시민사회, 국회, 관계 당국이 지속적으로 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50MW 터빈 2개를 갖춰, 최대 출력을 가정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282만t으로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 2030년 감축 목표 배출량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 NDC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삼척화력발전소가 내뿜을 온실가스는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중대한 걸림돌이다.

국제사회는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게 2030년 탈석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은 2030년 전후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석탄 산업은 이로 인한 정책 변화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언제든 좌초 자산으로 몰락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삼척블루파워의 재무적 안정성에도 중대한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 원이 조달되지 않은 상태로 본 공사에 착수했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2019년부터 8회에 걸쳐 총 9,4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취되고, 금융기관 또한 이를 중대한 위험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부터 이번 발행 건을 포함해 4회에 걸친 7,450억 원의 채권 발행은 130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외면과 위험은 삼척블루파워 채권의 연간 7%라는 높은 수익률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삼척블루파워의 ‘석탄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데도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6개 증권사는 계속해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주관하고 있다. 이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5개 증권사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저마다 기후금융, 저탄소금융을 내세웠음에도 탈석탄 투자 정책이 신규 석탄발전에 국한되는 것이며, 선언 이전인 2018년에 체결된 1조 원 규모의 총액인수확약을 근거로 석탄금융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삼척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은 탈석탄 선언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인수한 뒤 다시 개인투자자 등에게 판매하는 리테일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의 재무적 위험 요소가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석탄채권과 기후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석탄금융 행위가 지속되는 한 이 기관들이 내세우는 탈석탄, ESG, 기후금융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 가능한 에너지, 녹색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는 물론, 이미 글로벌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6개 증권사 역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비롯한 석탄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탈석탄 선언에 걸맞은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증권사, 기업,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6개 증권사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더 이상 개인투자자에게 되팔지 말고, 석탄 금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그룹,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산업은행은 삼척블루파워의 건설, 운영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삼척화력발전소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밝혀내고, 운영 중단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14일

석탄을 넘어서